

'백제수도' 익산 왕궁 1300여년 만에 '동북아 식품수도'로 부활

올해 395억원 투입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 구축 속도전 식품 벤처·일자리 창출 사업 육성...청년창업 지원 강화

'백제 수도' 익산 왕궁면 일대가 1300여년 만에 '동북아 식품수도'로 부활한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동북아 식품시장 선점을 위해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조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은 395억원으로 전년(216억원)보다 83% 늘어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타깃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으로 분양률도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한 53.6%(기업 89개

사)를 보이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5년 동안 법인·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자금 운영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5대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7개의 기업지원시설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2개 사업에 이어 올해 2개의 신규

사업을 통해 식품벤처와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한다.

익산시는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사업'에 266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완료한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핵심자원과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해 창업·고용이 연계되는 혁신 일자리 선도 모델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1인 가구의 증가로 성장하는 가정간편식(HMR) 산업 대응을 위해 45억원을 투입해 'HMR 기술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구축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농식품 원료 중계·공급센터'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센터는 기업들에게 우수한 농식품 원료의 유통 단계를 축소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 소득 창출에도 일조하게 된다.

식품의 섭취 목적·용도에 맞게 액상이나 젤리 등의 형태로 만드는 '기능성식품 제형센터'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각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입주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인책 등 체계적 기업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익산시는 식품클러스터의 열악한 교통,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입주기업에 교통수당과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전북도와 공동으로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복지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센터를 구축해 근로자 복지환경에도 힘을 기울인다.

익산시 관계자는 "기업 유치 목표치 53%를 넘어섰고 각종 인프라 확충과 조세감면 혜택이 더해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지원·육성해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주민주도 도시재생 '군산 우체통거리' 우뚝

국토교통부 우수사례 선정...폐우체통 활용·손편지축제 눈길

주민주도 도시재생 사업인 '군산 우체통거리 조성'이 국토교통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주목받고 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우체통거리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간하는 '2020 도시재생사업 30선'에 포함됐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진행된 전국의 도시재생사업 중 구체적인 성과와 내용을 직관적으로 표출해 도시재생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발간됐다. 성공사례를 한데 엮은 첫 시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발간사에서 "버려진 폐우체통을 활용하지는 작은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우체통거리를 만들고 손편지축제까지 여는 마을이 있다"며 군산시 도시재생 사업 성과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우체통거리'는 주민들이 지난 2016년 폐우체통에 그림을 그려 상가 앞에 세우는 아이디어로 첫걸음을 뒀다. 2018년 제1회 손편지축제를 개최하면서 평범했던 거리는 '우체통거리'라는 도로명을 얻으며 활기를 되찾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은 경관협정운영회를 구성해 매주 거리 정결활동을 하는 등 거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또 정기회의를 열어 우체통거리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공유하고 있다. 올해도 오는 5월 제3회 손편지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군산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일제강점기 아픈 상처를 도시재생을 통해 치유하고, 근대역사체험 공간으로 승화하는 사업이다. 삼아일명동·영화동 등 원도심 일대의 근대건축물 보전·정비함과 동시에 골목길 정비,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정비, 영화시장 활성화 등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지역 활력을 되찾고, 이를 원도심 전체로 확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간 군산시 도시재생과장은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 우수사례 30선에 선정된 것은 도시재생의 가치를 공유하며, 주민과 협력·상생으로 만든 결과"라며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군산 우체통거리’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군산시 제공>



정읍시가 올해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335억원 투입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추진

정읍시는 올해 335억원을 투입해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는 농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농민의 경작 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8개소, 농로 포장사업 203개소, 용배수로 정비사업 211개소,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42개소, 수리시설개보수 11개소,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사업 등을 진행한다.

특히 신태인읍·고부면·영원면·감곡면 일원 단풍미인 쌀 생산단지 내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영농여건 개선과 쌀 브랜드 가치 향상에 주력한다.

정읍시는 지난해 생산단지 내 101억원을 들여 용배수로 등 60개소를 정비했다.

오는 2023년까지 단지 내 용배수로와 경작로 161개소 정비에 총 302억원(매년 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영농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면 농업 경쟁력과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칠산 앞바다 '주꾸미 황금어장' 명성 되찾는다

연안바다목장 조성 방안 등 논의

고창군이 칠산 앞바다를 '주꾸미 황금어장'으로 조성한다.

고창군은 지난 1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지역 어촌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관리위원회'를 열어 주꾸미 어장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과 갯벌 자원조성을 위한 품종 선정, 주꾸미 어장 조성 예산배분, 인공어초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창군은 올해 주꾸미 산란·성육장 조성과 패류 종자를 살포해 수산자원을 높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또 지역 어업인들도 직접 산란장 설치와 철거

등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일자리 제공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창 알배기 주꾸미'는 담백한 특유의 맛에 찾는 사람이 많아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고창해역 칠산 앞바다는 '주꾸미 황금어장'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했으나, 주꾸미 자원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창군은 어족 자원 확보를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어장 회복에 나서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해 연안해역의 주꾸미 자원량을 늘리는 '주꾸미 특화형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관계자들이 칠산 앞바다에 주꾸미 산란장인 피뿔고동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